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321

JCCT 2023-1-38

##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사례 연구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f Media Literacy for Intercultural Education : Focused on <Crash Landing on You>

김정희\*

Jeong Hee Kim\*

**요약**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시대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화 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철학을 제시한다.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 사이의 활발한 만남과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우리는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사례로서 흥행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연구한다.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차이와 상호문화주의에 대해 논의해보고, 구체적으로 문화 간 대화의 양상을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 드라마가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미디어 텍스트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상호문화주의, 미디어리터러시, 다문화주의, 스토리텔링, 사랑의 불시착

**Abstract** Interculturalism presents a philosophy for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 the multicultural era and for resolving various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intercultural differences. While multiculturalism focuses on the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s, interculturalism seeks activ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We study the hit drama <Crash Landing on You> as an example of media literacy for intercultural education. We will discuss cultural differences and interculturalism in dramas, and analyze aspects of intercultural dialogue specifically.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at this drama is an effective media text of intercultural education.

**Key words** : Interculturalism, Media Literacy, Multiculturalism, Storytelling, Crash Landing on You

#### 1.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화 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철학을 제시한다. 기존 영미 중심의 다문화주의와는 다소 차별화된 관점과 대안적 방법을 가지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e)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천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채택되어 '상호문화교육'을 성립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으며,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다문화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지연되며 갈등을 일으킬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희원, 선문대학교 영상영상콘텐츠학부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27,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sa-vie@hanmail.net

Dept. of History & Image content, SunMoon Univ, Korea

효과적인 접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자들 역시도 상호문화주의에서 교육적 해답을 찾고 있다 [1-3].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문화교육은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다시 말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행동의 차원에 비중을 두고 있고,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들 간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4]. 이러한 상호문화주의 철학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문화 간 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문화적 차이를 정태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를 부여하는 두 실체 간의 역동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다. 상호문화적 접근 방식은 타인을 의미의 조직망 속에 가두어 파악하거나 민족 중심적 토대 위에서 일련의 비교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문화 자체가 아닌 그 관계를 중시한다[5].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에 있어서 문화 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의 과정과 방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II. 상호문화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우리는 본고에서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일상적으로 영상·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학습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접근이다. 특히 드라마 장르는 한 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정 몰입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추상적인 문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스토리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구조를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6].

영화나 드라마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상호문화적 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적인 상황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콘텐츠의 도입부에 제시되는 스토리의 세계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문화 차이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카테고리들 기준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문화차이는 스토리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재현되기에 적합하다.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지역의 차이는 국가 간 경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역의 대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흥미요소를 가짐으로써 종종 영화나 드라마의 좋은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단순한 지역 차이를 뛰어넘는 특수한 한국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 간 대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전제가 되는 소통의 부재는 ‘소통의 금지’ 아래 철저히 단절되어온 상태이다. 남북 분단에 의해 발생한 문화적 단절 및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이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사랑의 불시착>이 흥행리에 종영한 다음 박지은 작가를 북한 문화에 대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통일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올해의 통일교육 인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7]. 이후에도 박작가는 통일교육 강사로 섭외되기도 하였다.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로서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문화와 직접 소통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을 주목해볼 수 있다.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본 드라마의 상호문화적 대화를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본다.

## III. 드라마에 재현된 상호문화주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남한의 여주인공 세리가 패러글라이딩 중에 돌풍을 만나 북한에 불시착하게 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연한 사고로 북한으로 가게 된 세리가 북한 문화와 마주하며 어떻게 북한 문화를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지가 그려지는 것이다. 최초로 북한에 불시착한 세리에게 인지된 북한의 모습은 어떠한을까? 어느 깊은 숲 나무 꼭대기에 간신히 걸려 살아남은 세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국립공원”이라고 인식한다. 고라니가 사는 아주 평화롭고 청정한 숲이 사실은 북한의 비무장지대라는 사실을 깨달은 세리는 충격과 함께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는 흔히 이방인, 낯선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다. 그것을 견어내고 ‘맨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공간에 대한 주인공의 최초 인지는 선입견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북한에 체류하게 되는 세리는 처음 접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생활문화 속에서 일상을 보내게 되고 남으로의 귀환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곳의 상이한 사회제도와 체제를 경험한다. 무엇보다 세리의 생존에 절대적인 원조자가 되어준 정혁과의 소통은 로맨스장르 드라마로서 정서적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심도있는 문화 간 대화를 들려주었다. 집단 간 갈등과 편견을 줄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상이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더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식을 통해 타자의 세계에 대해 좀 더 복잡하고 체화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8]. 주인공이 어느 날 돌풍을 만나 북한에 불시착한다는 흥미롭고 드라마틱한 설정은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상호문화주의 재현에 아주 적합한 전제가 되어준 것이다. 남에서 온 윤세리는 해주 윤씨이며, 북에 살고 있는 리정혁은 전주 이씨라는 아이러니 설정은 민족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문화 간 대화의 가능성, 또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타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관계 자체를 중시하며 이는 역동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세리가 정혁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상호문화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은 드라마 전체에 걸쳐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혁이 소속된 5중대 대원들(표치수, 박광범, 김주먹, 금은동)과의 우정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서브플롯으로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각각의 캐릭터에 차별성을 부여하였고 이들과의 관계 변화 양상은 문화 간 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친밀한 접촉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차이를 넘어서 같은 요구를 공유하는 인간들이 진실하게 만나는 여건을 조성하는 문화 간 대화의 중요한 전략이 적용되었다.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에서 자라온 이들은 불가피하게 세리와 동고동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북한에서의 탈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단합하였고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상호 대화와 교류를 쌓아간 결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더불어 주요한 보조캐릭터로서 사택마을 부인들이 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들과 세리는 '연애'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소통을 시작하게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류한다. 결말부에 세리스 초이스로

복귀한 세리는 '그리움'이라는 화장품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여 케이스에 영애, 월숙, 옥금, 명순의 얼굴을 그려넣게 된다. 상호문화주의는 타인이 소속된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타인과의 만남을 권장한다. 개인은 복수의 복잡한 정체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특수한 존재이다. 즉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의 일부이다. 개인은 특수한 존재인 동시에 보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소통과 공감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드라마의 전개가 북한과 남한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번갈아가며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 철학은 다문화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특징은 크게 소속집단에 우선권 부여, 차이의 공간화,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법률 제정, 문화상대주의 인정, 공공장소에서 차이점 표현하기 등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소수자가 해당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요구한다. 즉 쌍방향적인 대화를 말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정태적 관계보다는 역동적인 대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드라마 전반에서 세리가 북한에 머물며 북한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후반에서는 정혁과 부대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오늘날 남한의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이 펼쳐진다. 즉 문화적 배경의 교체와 함께 문화적 체험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남한 사람의 시선에서 낯선 북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역으로 북한 사람이 남한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 IV. 문화 간 대화의 양상

##### 1. 사실적 재현을 통한 상호 문화의 이해

문화 간 대화의 기본능력은 일반적으로 듣기, 대화하기, 호기심 등으로 제시된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북한의 군인 사택마을 체류기간 동안 낯선 그 곳의 문화를

직접 목격하고 현지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대화한다. 특히 드라마에서 낯선 문화를 접하는 이방인으로서 주인공의 시선은 호기심, 즉 능동적인 개방성을 드러냄으로써 문화 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간다. 또한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낯선 문화에 맞닥뜨린 인물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면을 코미디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다소 긴장된 상황에서 편안하게 드라마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화 간 대화의 기본능력을 획득해가면서 등장인물들은 열린 마음으로 상호이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를 통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리고 해당문화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즐기는 수준까지 다다른다.

드라마에 재현된 생활문화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보겠다. 우선 북한 생활문화의 경우 의, 식, 주의 카테고리에서 각각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 상세하게 재현되었다. 의복문화에 대해서는 장마당 패션스타일, 수입화장품, 여성들이 머리를 단정히 묶는 문화, 미용실의 각종 헤어스타일, 평양 시내 백화점 등을 통해 보여졌다.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설탕에 찍어 먹는 누룽지, 옥수수, 찌감자, 민물매운탕, 단맛닭고기, 장터국수 등의 소재가 제시되었다. 주거문화에서도 북한의 다양한 생활문화가 재현되었는데, 김치움, 아궁이, 등잔, 연탄, 석유콘로, 목욕문화, 엘리베이터 복무원 등이 활용되었다. 그 외 북한의 일상문화로는 마을공동 빨래터, 김장문화, 열차 판매원아코디언 연주 및 특산물 판매, 잦은 정전, 일반화된 도청, 장기 군복무 등이 그려졌다.

드라마의 후반부에 재현된 남한의 생활문화 역시도의, 식, 주 각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의복문화는 찢어진 청바지, 로드샵의 패션 아이템, 미용팩 등이 그려졌고, 음식문화는 치맥, 감자튀김, 커피, 한우 등이 제시되었다. 주거문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온수, 로봇청소기 등이 보여졌다. 그 외 남한의 일상문화에서는 밤새 불켜진 빌딩, 24시 편의점, 거리를 메운 자동차, 짬질방, PC방 등이 재현되었고 생일노래와 생일파티 문화, 첫눈 문화 등이 그려졌다.

위와 같이 드라마 전반에서 의, 식, 주 각각의 영역에 기반하여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재현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문화차이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직접 체험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관점을

따라 시청자들 역시 낯선 북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역으로 남한의 문화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에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문화를 성찰할 수 있다. 마치 하나의 교과서와 같이 드라마 전반에서 폭넓게 제시되는 문화적 요소들과 이것이 문화 간 대화를 통해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수용되어지는 과정은 이 드라마가 상호문화교육의 매우 효과적인 텍스트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해당문화에 대한 사실적 재현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근함을 제시했으며, 드라마를 통해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북한의 생활문화가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실제와 흡사하게 잘 고증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화의 재현에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북한 출신 보조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현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디테일한 요소들을 재현해내었다[9]. 숙박거점, 빠다치기, 놀가지, 꽃제비 등 전문용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나올 때에는 마치 메디컬드라마를 비롯한 전문적드라마에 나올 법한 자막을 처리하여 문화차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 2. 보편적 테마를 활용한 소통의 기반 마련

문화 간 대화의 주체는 해당 문화와 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집단보다는 개인에 우선권을 두는 점은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와 거리를 두는 점이다.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은 북한과 남한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개인이 가지는 정체성의 한 면에 지나지 않는다. 인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의 카테고리에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속해있다. 문화 간 대화를 보다 쉽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보다 보편적인 테마이며 이에 기반하여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다.

드라마에서 가장 우선하는 테마는 ‘가족’이다. 세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혁은 형을 잃은 아픔으로 여전히 고통스럽다. 가족이라는 테마는 두 주인공이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또한 주변인물들 역시 가족의 각자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인물들이 비무장지대 폐가에 여전히 정한수 그릇이 놓여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공감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다음으로 ‘연애’에 대한 테마 역시도 남과 북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서 문화 간 대화에 중요한 테마로 활용되었다.

위와 같은 테마들은 이야기가치(story value)가 매우 높은 소재들로서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간 공통의 관심과 욕망을 반영한다. 사랑이라는 큰 범주 아래 가족애, 연애, 우정이라는 테마가 드라마에서 주요 테마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권력, 또는 돈이라는 높은 이야기 가치에 연결되어 그려지고 있다. 세리는 재벌가문의 상속녀로서 이복 오빠들의 위협, 음모에 휘말리고 있으며, 정혁은 형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음모에 희생된 것임을 밝혀낸다. 두 주인공이 목표대로 무사히 탈출, 귀환하는 것도 권력의 암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는 드라마 전반의 서사행로를 통해 구축시켜온 주제적 의미로서 ‘인간성 회복’을 전달하고 있다[10]. 이것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하나의 로맨스장르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주의 관점이 반영된 문화 간 대화의 텍스트로 읽히도록 만드는 점이다.

### 3. 문화트렌드의 반영을 통한 젊은 세대의 참여

남한과 북한의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무지를 넘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에 최신 문화트렌드를 반영하여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문화 간 대화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해당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음을 분석하였지만,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문화트렌드의 반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드라마의 흥행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낯선 타자에 대해 흔히 그러하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의 전형적 이미지, 즉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과거 북한의 이미지에 멈춰져있는 시계를 오늘로 돌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대화의 성립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북한 문화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문화 간 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드라마에서는 “츄스러운데 힙한” 장마당의 패션이 보여지고 미용실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소개되었다. 세리는 장마당에서 직접 옷을 골라입고 “어서가세요” 머리를 한다.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소년장수”는 평양 앱 장마당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의 치맥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의 ‘탈맥(탈피 명태에 맥주)’이다. 북한의 문화트렌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언어적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어 관심을 모았다. 살까기(다이어트), 맵짠녀(퀵카), 후라이까다(거짓말하다), 짱 읍시다(건배), 짱 땀시다(원샷) 등이다. 역으로 남한의 문화트렌드를 반영하는 어휘로 하트, 심쿵, 최애, 사랑꾼, 모태솔로, 감튀, 걸바속죽 등이 표현되었으며 흥행하는 게임이 보여지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트렌드의 반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모았다.

주인공 정혁의 부하대원으로 나오는 김주먹은 한류 드라마 팬으로서 남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설정되었다.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주먹은 문화통역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BTS 뮤직비디오를 즐겨보는 북한 여성 팬(아이미)의 모습이 그려지며 콘텐츠를 통한 문화교류를 시사하였다. 주먹이 트렌드드라마의 클리셰를 패러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드라마 전반에서는 한류드라마와 영화를 환기시키는 장면이 삽입되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스카이캐슬>, <알함브라궁전의 추억>,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봄날은 간다> 등이 등장하였고, 최지우, 김수현이 카메오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함으로써 역시 문화트렌드의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 V. 결 론

우리는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연구로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분석해보았다. 디지털 시대에 보편적인 미디어의 활용은 교육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기대할 수 있으며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보다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다. 특히 다양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흥행 콘텐츠로 자리매김 된 위의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로맨스장르를 메인플롯으로 전개시켜나가면서도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문화 간 대화의 과정을 그려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에 필수적인 문화 간 대화를 재현해내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정체성의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문화 간 대화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적 재현을 통한 상호 문화의 이해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편적 테마를 활용하여 상호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트렌드의 반영을 통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의미하게 도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화주의가 아닌 쌍방향적인 상호 소통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주의 철학을 드라마 전체 구성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References

- [1] H. S. Kim,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inclusion among the young gen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47 no.2, pp.291-316, 2015.
- [2] B. R. Kim, "How is reconciliation possible? : Theoretical Reflections and Applic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1 no.2, pp.39-74, 2019.
- [3] B. E. Cha, "Practice and Possibiliti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Intercultural Dialogue," *Global Studies Education*, vol. 13 no.3, pp. 25-56, 2021.
- [4] H. E Jang, *Intercultural Education*, Pakyoungsa, 2020.
- [5] A. P. Martine, trans. H.E Jang, *L'éducation Interculturelle*, Hanul, p.75, 2010.
- [6] Nae Young Kang, "A Study On the Narrative of VR Disaster and Safety Education Introduced by Disaster Film Narrative," *JCCT*, 2022.
- [7] < The author of 'Crash Landing on You' Selected as a Unified Educator >, Nocut News, 2020.5.14.
- [8]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p. 41, 2020.
- [9] <Crash Landing on You: The defector who brought North-South Korean romance to life> BBC News, 2020. 2. 20.
- [10] Jeong Hee Kim, "Popularity Code and Story telling Strategy of Crash Landing on You," *Global Cultural Contents*, vol. 48, pp.69-86, 2021.